

# 미얀마, 종교와 민족 갈등 '분기점'에 서다

### 미얀마 불교계 총선 앞두고 'USDP' 지지... 우려 여론 확산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미얀마 총선에 '민주화'를 기대하는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얀마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불교급진그룹 '마바타'가 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

'Nikkei Asian Review'는 10월 18일 "미얀마의 불교급진그룹인 '마바타(Ma Ba Tha)'가 아웅 산 수지(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최대 야당 민족민주동맹(이하 NLD)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무슬림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집권 야당 통합단결 발전당(이하 USDP)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Nikkei Asian Review'는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미얀마의 종교간 긴장이 선거를 앞둔 정세 속에서 재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바타의 반(反) 수치 정서는 지난 16일 라킨(Rakhine)을 방문한 수치 여사가 "미얀마 무슬림의 권익을 세우겠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마바타는 라킨 방문을 철회할 것을 수치 여사에게 요구했다.

'Nikkei Asian Review'에 따르면, 라킨의 무슬림들은 미얀마 종교·민족 갈등의 현장인 라킨을 방문한 수치 여사를 환영했다. 이와 함께 라킨 무슬림들은 '어머니 수치'를 외치며 미얀마 소수민족인 무슬림(로힝야)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 주길 청원했다.

수치 여사의 라킨 방문을 지켜본 바담파 위달라(Bhaddanta Vimala) 마바타 사무총장 스님은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의 부족한 경륜으로는 종교·민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이끌 수 없다"며 "불교계는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총선을 대비해 유권자인 신도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USDP 지원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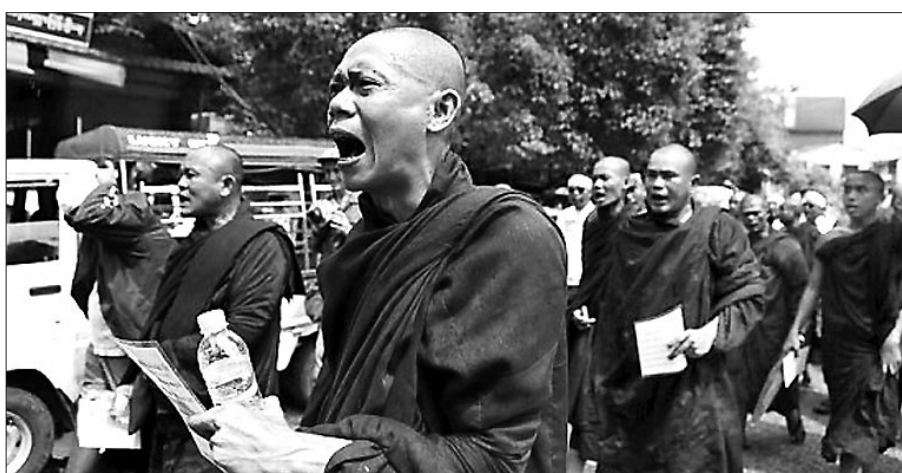
이에 대해 USDP는 "미얀마 헌법에서 스님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급진그룹 '마바타' 요청 불구 수치여사 로힝야족 방문 '단초' "NLD, 미얀마 갈등 해결 못해" 투표 선동행위에 국제적 관심**

미얀마와 동맹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집권 야당인 USDP는 과거 군사정권 출신의 군장성들이 모여 있는 집권 야당이다.

유 타이 우(U Htay oo) USDP 대표는 "마바타가 USDP의 선거 후보자를 찍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단지 미얀마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황은 다르다. '불교계 비 라덴'으로 지목된 마바타의 위라투(Wirathu) 스님을 필두로 마바타의 스님들은 대중 법회에서 "불교도는 페인 세인(Thein Sein,



미얀마 불교급진그룹 '마바타' 소속 스님들이 지난 5월 가두행진을 벌였다. 국제 사회가 미얀마 정부의 무관용 로힝야족 탄압을 비판하자,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다.

現 미얀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며 "그와 USDP는 미얀마의 평화를 지키고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NLD는 "마바타가 NLD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를 선동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통합선거관리위원회(Union Election Commission)에 전달했다. 미얀마 선거법은 종교·인종 등을 이유로 투표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총선은 미얀마 현안인 종교·민족 갈등의 갈림길이기도 하다"고 전제한 'Nikkei Asian Review'는 "이는 집권 야당과 불교계 선거전에 대한 NLD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자, 미얀마 국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AP통신은 "11월8일 총선을 앞두

고 있는 미얀마에서 종교의 정치화 및 증오 연설이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경고를 전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차관보는 "이번 선거가 미얀마의 독재 체제 극복을 위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지만 "미국은 선거 과정 여러 단계에서 노정되는 약점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라킨에서는 지난 2012년 불교도 주민과 소수 로힝야 무슬림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해 2백 명이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라킨에서 발생한 14만 명의 난민 중 대다수는 이슬람 로힝야족이다. 인권운동가로 노벨상을 수상한 수치 여사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교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라킨의 무슬림에 대한 미얀마 정부와 불교계의 인권 유린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 국제 비난 여론에 시달리 바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대만 스님들, 옥수수로 '자비 나눔'

### 캐나다 히터데일서 옥수수 농장 무료개방 '주목'

### 2년 전 주민들 도움 받아 회향 구세군에 옥수수 2톤 전달도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에서 지역 포교에 나선 스님들의 아름다운 서원 실천 이화제다.

'CBCNEWS'는 10월 18일 "세인트로렌스 만(灣)에 있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몬테규에서 대만 불교계 스님들의 '서원 실천'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님들이 몬테규의 히터데일(Heatherdale) 일대에서 은사 스님과 함께 직접 일궈온 옥수수 농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한 것이다.

"저녁 5시까지 농장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옥수수를 따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한 단(Dan) 스님은 "2년 전 은사를 모시고 사형사제가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 여러 난관에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은사 스님은 들녘에 쪽 뽕은 옥수수를 보면서 무엇이든지 지역 주민과 나눌 것을 우리에게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CBCNEWS'에 따르면, 스님들의 옥수수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물이라도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에 따라 옥수수는 철저히 유기농법으로 재배됐던 게 알려졌고, 또 옥수수를 가

져가는 양도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아들과 사원 옥수수 농장을 찾은 트리스타 도라(Trista Doary)씨는 "건강에 좋은 유기농 옥수수를 먹게 됐다"며 "옥수수를 수확하며 두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쌓고, 스님들의 따뜻한 마음도 새겼다"고 말했다.

옥수수 농장이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푸드뱅크'는 스님들의 옥수수 나눔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푸드뱅크 자원봉사자 진 마키(Jeanne Maki)씨는 "불우 이웃을 돕는 일은 종교를 떠나 의미 있는 행동"이라며 "힘들게 키운 옥수수를 흔쾌히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는 스님들에게 관용의 참 모습을 보았다"며 "옥수수를 받은 불우 이웃들 역시 잊지 않고 스님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몹시 훈훈했다"고 말했다.

진 마키 씨는 지난 2주간 옥수수 농장을 방문해 수확한 옥수수를 '푸드뱅크'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불우 이웃들과 나눴다.

한편 'CBCNEWS'는 "스님들은 지난 10여 일간 옥수수 농장에서 수확한 약 2톤의 옥수수를 샤프타운(Charlottetown)의 구세군에 전달하는 등 노력도 전개했다"며 "스님들이 스스로 약품을 묵묵히 실천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에서 단 스님(사진)을 비롯한 대만불교계 스님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키운 옥수수를 나눠줘 화제다.

## 뉴욕타임즈, 정관 스님 사찰음식 "고귀하다" 극찬



뉴욕타임즈는 10월 16일 '사찰요리 대가' 백양사 천진암 주지 정관 스님(사진)을 소개하고 "가장 고귀한 음식을 만든다"고 언급했다. 출처=뉴욕타임즈

### 10월 16일 백양사 천진암 주지 정관 스님 텃밭 등 소개

뉴욕 타임즈가 한국 비구니 스님의 사찰 요리에 극찬을 표했다.

'New York Times' (이하 뉴욕타임즈)는 10월 16일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곳은 뉴욕도, 코펜하겐도 아니다"며 "대한민국 외진 암자에 있는 59세 비구니 스님이 경외할 만한 채식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59세 한국 비구니 스님'은 내장산 백양사 천진암 주지 정관 스님이다. 뉴욕타임즈는 정관 스님의 사찰 요리법을 취재하기 위해 직접 현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 스님 요리법의 특징은 재료 본연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다. 정관 스님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서 "우리의 몸과 미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궁극적 요리는 과일·채

소·허브·콩·버섯·곡물 등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오이를 요리할 때는 내가 오이가 된다. 완성된 요리와 본연의 재료 사이에 어떤 거리도 느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관 스님은 지난 2월 세계적 셰프 에릭 리퍼트(Eric Ripert)가 진행하는 미국 공영방송 PBS-TV 요리프로그램 1회 출연함으로써 한국사찰음식을 소개해 큰 주목을 끌었는 뿐 아니라, 맨해튼에 위치한 '르버나딘(Le Bernadin)' 레스토랑에서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뉴욕타임즈는 "정관 스님은 레스토랑을 운영하지 않는다. 포 스님은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운 적도 없다"며 "하지만 스님은 미셸 브라(Michel Bras), 알랭 파사르(Alain

Passard) 등과 같은 세계적 스타 셰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정관 스님이 가꾸고 있는 텃밭에 주목했다. 스님은 산언덕에 텃밭을 만들고 호박, 가지, 들깨, 허브 등을 직접 재배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스님의 텃밭은 어떤 상황에서든 평정을 잃지 않는 그녀의 성품을 닮아있었다"며 "스님은 텃밭 작물을 곤충이나 멧돼지가 해쳐도 그대로 둔다. 울타리 없이 자연친화적으로 경작하는 텃밭이 비밀 병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관 스님은 적문 스님, 선재 스님 등과 함께 사찰음식 전문가 1세대로 꼽히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교재 편찬위원 및 뜻바 사찰음식연구소장,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회 부회장 등 맡은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com

## 달라이라마 "지구온난화, 전 세계인 책임"

### 티벳 망명정부, 10월 20일 기후변화캠페인 영상 담화문서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 심각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티벳 불교 정신적지도 달라이라마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의 지붕' 티베트가 파괴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buzzflash' 10월 21일 달라이라마가 인도 다람살라에 위치한 티벳 망명정부 기후변화 캠페인 일환으로 20일 영상 담

화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기후변화는 전 인류의 책임이다. 세계의 지붕, 티베트 고원을 지켜달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50년간 티베트 고원 기온이 1.3℃ 올랐다. 이 추세라면 35년 후에는 이곳 빙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아름 기자

##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 제72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 도체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여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왔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황사 약사요...



실전문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